

무용전공 중국유학생의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전공교육 만족의 관계에서 긍정적 심리자본의 조절효과*

**
이 신

목차	Abstract
	I. 서론
	II. 연구방법
	III. 연구결과
	IV. 논의
	V. 결론
	참고문헌

* 2022년 이신의 박사학위논문을 수정 보완하였음

** 세종대학교 대학원 박사

논문투고일 : 2023.04.10

논문심사일 : 2023.04.15

게재확정일 : 2023.06.10

/Abstract

The moderating effect of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areer decision making self-efficacy and major education satisfaction of Chinese international students majoring in dance

Li, Xin · Sejong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moderating effect of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areer decision making self-efficacy and major education satisfaction of Chinese international students majoring in dance, which can design their future after graduation through dance education programs and learning for Chinese students majoring in dance at Korea universities and graduate schools. Through this study, the moderating effect of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as a positive psychological mechanism between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nd major education satisfaction has been verified, so systematic classes, guidance, and counseling programs to help Chinese students majoring in dance majors adapt to college life and study should be conducted to prepare a plan to be satisfied with major education and to be immersed.

<key words>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education satisfaction, Chinese international students majoring in dance

<주요어> 무용전공, 중국유학생, 교육환경, 무용몰입, 대학생활적응

남부현, 김민지(2016:90)에 의하면 한국 내 중국 유학생들은 언어를 비롯해 사회문화와 대학생활 등 다양한 부분에서 대인관계 스트레스, 고국에 대한 향수 등 심리적 측면에서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고 하였다. 중국 유학생들의 진로결정 관련 연구는 이들의 스트레스 원인을 파악하고 이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하여 원활한 대학생활 적응과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감소할 수 있는 연구의 의의가 있다. 교육과정의 목표가 되는 ‘진로 결정’은 “개인의 생애 교육과정에서 학습을 통해 달성되는 경험과 실력을 기반으로 개인의 미래 직업에 도달하기 위한 최종 의사의 표현으로 정의”(Crites, J., 1969:8)된다. 예컨대 허운혁(2014:44)에 의하면 진로를 결정하는 것은 대학에서의 전공 선택에 대한 확신과 졸업 후의 구체적인 직업 분야의 선택 등을 모두 포함하는 의미라고 하였다. 이와 관련,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직업선택을 앞둔 대학생 시기 진로에 대한 본인의 확실한 목표가 있어야 진로와 관련된 일들을 해결할 수 있다. 특히, 환경이 불안정한 유학생의 경우에는 직업과 연관된 목표설정을 위한 의사결정에서 매우 중요한 변인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한국과 중국의 무용교육 방식이 다르고 낮은 상황에서 미래직업 세계에 대한 확신 및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하부 요인이 무용 교육 만족도를 강화시킬 수 있을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주어진 과제나 행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개인의 가능성에 대한 신념으로써 “애매하고 예측할 수 없는 특수한 상황에서 결과를 달성하기 위해 요구되는 행동을 개인이 해낼 수 있다고 믿는 능력에 관한 판단”(Bandura, A. 1977:193)으로 정의된다. 이러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하위요인 연구로는 이기학과 이학주(2000)가 제시한 단축형 척도(CDMSE S-SF)를 바탕으로 후이은경(2000)의 연구에서 수정 보완한 4가지 하위요인(목표선택, 미래계획, 문제해결, 직업정보)이 대표적이다. 특히, 사회인지진로이론에 따라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진로와 관련된 변인 간의 관계에서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검증되고 있고(이성식·정철영, 2007), 진로 관련 요인들과의 관계에서 매개효과를 갖는다는 선행연구(Yakushko & Sokolova, 2010)가 확인된다.

대학에서의 전공교육 만족도는 자신이 소속된 전공 교과목에 대한 기대와 진로, 직업 준거 집단과의 비교 등에 의해서 전공학과를 평가한 심리적 결과물로서 “학습

자가 교육을 받으면서 습득되는 지식, 기술, 정보에 있어 충족함을 느끼는 것으로 정의”(이다빈, 2018:18)된다. 학과에서 제공되는 교육의 수준, 구성요소 및 수업내용에 의해 관련되어 있으며, 전공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성공적인 대학생활 적응에 중요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전공 교육 만족도는 전공 만족 수준에 따라 장래 진로계획이 달라지며 직업 및 진로와 직결되는 요소이기 때문에 본인의 전공 교육 과정으로부터 제공받는 여러 요인들이 개인의 전공만족도를 결정짓는다는 연구(어윤경, 2010; 한예정, 2014)에 의해 확인된다. 아울러, 본 연구는 개인의 성과 향상을 위하여 장점과 긍정적인 면을 발전시켜 스스로에게 동기부여 하는 심리적 특성으로써 ‘긍정적 심리자본’의 조절효과를 검토하기로 한다. 긍정적 심리자본은 중국 유학생들이 힘든 유학 생활 상황에 직면하였을 때 좌절하기보다 극복할 수 있다는 희망과 자신감을 갖게 한다는 연구(김규진 외, 2022)에서 응용하였다.

긍정적 심리자본은 “인간의 잠재력과 강점을 통하여 개인의 삶 혹은 조직의 성과를 향상시키는 긍정심리학과 긍정적 조직행동으로부터 제안된 개념”(박지윤, 2017:18)이다. 세부적인, 긍정적 심리자본의 구성요인으로 희망, 회복력, 낙관주의, 자기효능감의 4가지로 분류하는 연구가 일반적이다. 희망은 “주어진 목표 달성을 위해 동기부여 에너지를 집중하는 것이며 경로를 다양하게 찾아내고 이를 활용하여 원하는 목표를 성취하고자 내재적 동기를 생성하는 것을 의미”(Snyder, C. R., Irving, L. M. & Anderson, J. R., 1991:286)한다. 회복력은 “변화에 긍정적으로 적응하여 대응하는 것으로 이전의 상태로 복귀가 단순한 복귀가 아니며, 보다 높은 수준의 성과로 나아가고 삶의 과정속에서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는 것을 뜻”(Luthans, F. & Youssef, C. M., 2007:332)한다. 낙관주의는 “긍정적인 사건들을 내부적, 영구적, 일반적인 것으로 귀인하고, 부정적인 사건들에 대해서는 외적, 일시적, 특수적 상황요인으로 귀인하는 형태를 의미”(Luthans, F. & Youssef, C. M., 2007:331)한다. 자기효능감은 “구체적 과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인지적 자원, 동기, 행동 방식들을 이용하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자신감 또는 확신”(Stajkovic, A. D. & Luthans, F., 1998:66)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내 대학에 재학중인 무용 전공 중국 유학생을 대상으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을 독립변수로 설정하고 전공교육만족도를 종속변수로 설정하여 각 변인 간의 영향관계를 알아보고, 긍정적심리자본을 조절변수로 설정하여 두 변인간의 관계에서 조절 효과를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무용 전공 중국인 유학생의 전공교육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서울, 경기, 충청권에 소재한 무용 대학과 대학원의 무용 전공 중국 유학생을 대상으로 하였고,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성별은 남자 53명(20.5%), 여자 206명(79.5%)으로 나타났다. 학년은 2학년 50명(19.3%), 3학년 118명(45.6%), 4학년 37명(14.3%), 대학원 이상 54명(20.8%)으로 나타났고, 무용 전공 경력은 7년 미만 35명(13.5%), 7~10년 미만 194명(74.9%), 10~15년 미만 9명(3.5%), 15~20년 미만 15명(5.8%), 20년 이상 6명(2.3%)으로 나타났다. 무용 전공 분야는 발레무용 35명(13.5%), 현대무용 70명(27.0%), 한국무용 104명(40.2%), 기타 50명(19.3%)으로 나타났다.

표 1. 응답자 인구통계(N=259)

문항	구분	명	퍼센트
성별	남	53	20.5
	여	206	79.5
학년	2학년	50	19.3
	3학년	118	45.6
	4학년	37	14.3
	대학원 이상	54	20.8
경력	7년 미만	35	13.5
	7~10년 미만	194	74.9
	10~15년 미만	9	3.5
	15~20년 미만	15	5.8
	20년 이상	6	2.3
전공	발레	35	13.5
	현대	70	27.0
	한국	104	40.2
	기타	50	1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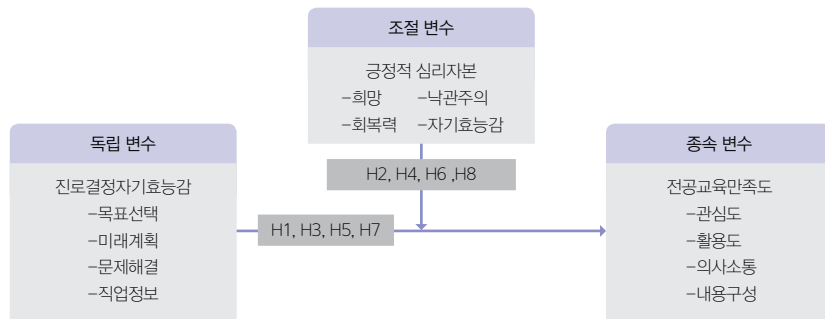
2. 자료 처리

본 연구는 코로나 19로 인하여 구글 폼으로 작성한 링크를 해당자에게 보내는 방식의 비대면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설문조사 기간(2021년 11월~12월)에

총 354명에게 링크를 보내 293명이 응답했으며, 이 중에서 설문에 불성실하게 응답하였거나 문항 중 응답 누락이 있는 34부를 제외한 259부를 최종 분석자료로 사용하였다. SPSS 24.0 통계 패키지를 이용하였으며 한국 내 무용 전공 중국 유학생들의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전공교육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1차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고 이들 간의 관계에서 긍정적 심리자본이 조절변수로서 작용하는지를 규명하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에 의한 3단계 조절효과를 2차로 실시하였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모든 유의성 검증을 .05로 설정하였다.

3. 연구 모형 및 가설

본 연구는 변인 간 관계 설정을 위해 고현·박신영(2019), 손지향(2020), 강승희(2010)의 연구를 참고했다. 고현·박신영(2019)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긍정심리자본이 대학생활만족과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는데, 이때 부모, 친구, 교수 등으로부터 사회적 지지를 받는것이 부분매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손지향(2020)은 유치원 교사를 대상으로 긍정심리자본의 조절효과로 인한 직무열의의 영향을 살펴보았고, 긍정심리자본의 고저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나타냈다. 강승희(2010)는 공학 전공 대학생을 대상으로 전공만족, 진로결정효능감, 진로태도 성숙이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고, 진로태도성숙, 진로결정효능감의 순으로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끼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긍정적 심리자본은 개인의 심리적 요인으로써 각각 중국 유학생들의 불안한 미래 상황과 그림에도 현실의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일종의 정서적 준비로 보았고 이때 긍정적 심리자본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영향을 확인하여 해당 학생들에게 이를 높여주는 것이 학교 측의 전공교육 외에도 도움이 됨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반영한 연구 모형은 다음과 같다.



통제변수: 성별, 학년, 무용전공경력, 무용전공분야

그림 1. 연구 모형

상기 연구 모형을 바탕으로, 아래와 같이 연구 가설(H : Hypothesis)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기로 한다.

H1: 무용전공 중국 유학생이 인식하는 목표선택은 전공교육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2: 무용전공 중국 유학생이 인식하는 목표선택과 전공교육만족도 관계에서 긍정적 심리자본은 조절효과를 가질 것이다.

H3: 무용전공 중국 유학생이 인식하는 미래계획은 전공교육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4: 무용전공 중국 유학생이 인식하는 미래계획과 전공교육만족도 관계에서 긍정적 심리자본은 조절효과를 가질 것이다.

H5: 무용전공 중국 유학생이 인식하는 문제해결은 전공교육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6: 무용전공 중국 유학생이 인식하는 문제해결과 전공교육만족도 관계에서 긍정적 심리자본은 조절효과를 가질 것이다.

H7: 무용전공 중국 유학생이 인식하는 직업정보는 전공교육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8: 무용전공 중국 유학생이 인식하는 직업정보와 전공교육만족도 관계에서 긍정적 심리자본은 조절효과를 가질 것이다.

4. 연구 도구 및 요인 분석

1) 연구 도구

본 연구에서는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전공교육만족도, 긍정적 심리자본 관련 기존 선행연구들의 측정도구를 가져오되, 무용 분야 전공자 대상임을 반영해 부분 수정하였다.

(1)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구성요인으로 진로탐색효능감과 진로수행효능감을 구성요소를 기초로(남미숙, 1998), Taylor와 Betz(1983)가 측정도구로 개발한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Scale 단축형(CDMSES-SF)'을 수정하여 이은경(2000)이 수정, 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구체적인 설문 문항은 '목표 선택'(3문항), '미래계획'(3문항), '문제해결'(4문항), '직업정보'(3문항)의 4가지 하위요인으로 총 13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설문 문항은 각 문항은 5점 Likert형 척도로(1=전혀 그렇지 않

다, 5=매우 그렇다) 평가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2) 전공교육만족도

전공교육만족도의 측정도구는 GOMS 데이터 중 연구목적에 부합하는 변인들을 추출하여 분석한 선행연구(이종찬, 2013; 정주영, 2013)를 바탕으로 하위요인은 4개(관심도, 활용도, 의사소통, 내용구성)으로 나누어 설문 문항을 구성하였다. 구체적인 설문 문항은 ‘관심도’(2문항), ‘활용도’(2문항), ‘의사소통’(2문항), ‘내용구성’(2문항)의 4가지 하위요인으로 총 8문항으로 구성하였다.

(3) 긍정적 심리자본

본 연구의 조절변수로 설정한 긍정적 심리자본은 희망, 낙관주의, 회복력, 자기효능감 등의 4개 요인으로 구분한 Luthans, F., Youssef C. M. & Avolio, B. J. (2006)의 연구를 바탕으로, 이종학(2014), 김태욱(2018)의 측정 도구를 수정, 보완하여 총 8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구체적인 설문 문항은 ‘희망’(2문항), ‘낙관주의’(2문항), ‘회복력’(2문항), ‘자기효능감’(2문항)의 4개 하위요인으로 분류하였다.

표 2. 변수의 설문 문항

변수	대상	하위변수 및 설문지 구성 내용	문항 수	
독립변수	진로결정자기효능감	목표선택(3문항)	13	29
		미래계획(3문항)		
		문제해결(4문항)		
		직업정보(3문항)		
종속변수	전공교육만족도	관심도(2문항)	8	
		활용도(2문항)		
		의사소통(2문항)		
		내용구성(2문항)		
조절변수	긍정적심리자본	희망(2문항)	8	
		낙관주의(2문항)		
		회복력(2문항)		
		자기효능감(2문항)		
Total			29	

2) 탐색적 요인분석과 신뢰도 분석

측정도구의 타당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주성분 분석과 베리맥스 회전¹⁾을 통해 요인을 분석한 결과, 4개 요인으로 분류되었고 아이겐값은 모두 1을 초과하였으며 누적분산설명력은 81.329%로 높게 나타났다. 요인별로 포함된 문항을 보면, 직업정보 3문항, 문제해결 4문항, 목표선택 3문항, 미래계획 3문항이 해당 요인에 포함되었고 요인 적재값은 모두 .50 이상으로 나타나 타당도를 저해하는 항목은 없으므로 요인분석의 타당도는 검증되었다. 상기 측정도구와 척도를 바탕으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신뢰도 측정 계수 Cronbach's α 는 .908로 나타났고, 하위영역인 목표선택은 .828, 미래계획은 .644, 문제해결은 .899, 직업정보는 .917로 나타났다. 따라서 Cronbach's α 값은 모두 .60 이상으로 나타나서 설문 문항의 내적 일관과 신뢰도는 문제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표 3.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대한 요인분석 및 신뢰도 분석 결과

문항	직업정보	문제해결	목표선택	미래계획
효능감12	.855	.302	.133	.053
효능감13	.813	.417	.078	.069
효능감11	.786	.451	.080	.110
효능감10	.332	.851	.072	.048
효능감9	.322	.850	.079	.056
효능감7	.378	.822	.135	.023
효능감8	.416	.792	.072	.111
효능감2	.090	.112	.856	.202
효능감3	.094	.154	.785	.295
효능감1	.108	.055	.705	.422
효능감5	.113	.086	.327	.845
효능감6	.340	.111	.161	.807
효능감4	.025	.089	.421	.751
아이겐값	3.312	3.312	2.220	1.729
공통분산(%)	25.475	25.474	17.081	13.299
누적분산(%)	25.475	50.949	68.030	81.329
Cronbach's α	.917	.899	.828	.644

1) 요인 간 상관관계가 예상될 경우, 정확성을 위해 사각회전을 사용하는 것이 추천되나, 분석 요인이 많은 경우나 요인 구조에 대한 해석의 용이성으로 인해 직각회전을 일반적으로 사용한다. 또한 사각회전 역시 대표 지표변인에 대한 주관적 선정과정의 단점으로 지적되는 등 각각 장단점이 존재하여 본 연구에서는 직각회전을 사용하였다.

다음으로 전공교육만족도 측정도구의 타당도를 판단하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진행한 결과, 전공교육만족도 8개 문항은 단일요인으로 구성되었고, 아이겐값은 5.282로 1을 초과하였으며, 분산설명력은 약 66.026%로 나타났다. 요인 적재값은 .701~.892로 모두 .50을 초과하여 타당도를 저해하는 항목은 없었으므로 요인분석의 타당도는 검증되었다. 상기 측정도구와 척도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 전공교육 만족도의 신뢰도 측정 계수 Cronbach's α 는 .925로 나타났고, 하위영역인 관심도는 .800, 활용도는 .619, 의사소통은 .676, 내용구성은 .626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Cronbach's α 값은 모두 .60 이상으로 나타나서 설문 문항의 내적 일관과 신뢰도는 문제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표 4. 전공교육만족도에 대한 요인분석 및 신뢰도 분석 결과

항목	F	아이겐값	공통분산(%)	Cronbach's α
전공교육만족도1	.892	5.282	66.026	.925
전공교육만족도3	.870			
전공교육만족도2	.844			
전공교육만족도7	.843			
전공교육만족도5	.841			
전공교육만족도6	.768			
전공교육만족도8	.719			
전공교육만족도4	.701			

마지막으로 긍정 심리자본 측정도구의 타당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진행한 결과, 긍정 심리자본의 8개 문항은 단일요인으로 구성되었고, 아이겐값은 6.092로 1을 초과하였으며, 분산설명력은 약 76.149%로 나타났다. 요인 적재값은 .747~.931로 모두 .50을 초과하여 타당도를 저해하는 항목은 없었고 요인분석의 타당도는 검증되었다. 상기 측정도구와 척도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 긍정적 심리자본의 신뢰도 측정 계수 Cronbach's α 가 .955로 나타났고, 하위영역인 희망은 .966, 낙관주의는 .932, 회복력은 .851, 자기효능감은 .757로 나타났다. 따라서 Cronbach's α 값은 모두 .60 이상으로 나타나서 설문 문항의 내적 일관과 신뢰도는 문제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표 5. 긍정 심리자본에 대한 요인분석 및 신뢰도 분석 결과

항목	F	아이겐값	공통분산(%)	Cronbach's α
긍정 심리자본2	.931	6.092	76.149	.955
긍정 심리자본1	.923			
긍정 심리자본4	.923			
긍정 심리자본3	.910			
긍정 심리자본5	.868			
긍정 심리자본6	.863			
긍정 심리자본7	.798			
긍정 심리자본8	.747			

III 연구결과

본 연구는 무용 전공 중국인 유학생의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전공교육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전공교육 만족도 관계에서 긍정적 심리자본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위계적 다중회귀분석(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고 통제변수에는 성별, 학년, 무용 전공 경력, 전공 분야를 투입하였다.

1) 목표선택과 전공교육 만족도 관계에서 긍정적 심리자본의 조절효과

모델 1은 연구가설 1인 'H1 : 무용전공 중국 유학생이 인식하는 목표선택은 전공교육 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를 검증하기 위한 모델로써 성별, 학년, 무용 전공 경력, 전공 분야의 영향을 통제하여 목표선택이 전공교육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다. 연구 결과, 모델의 설명력(R^2)은 .132로 유의하게 나타났고($p < .001$), 무용전공 중국 유학생의 목표선택 인식은 전공교육 만족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B=0.286, SE=.051, p < .001$). 이는 목표선택을 효과적으로 높게 인식할수록 전공교육 만족도는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모델 2는 긍정적 심리자본을 추가로 모형에 투입한 결과, 모델의 설명력(R^2)은 .523으로 나타나서 모델 1보다 크게 증가하였으므로 긍정적 심리자본은 전공교육 만족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B=0.506, SE=.035, p < .001$). 모델 3은 연구가설 2인 'H2 : 무용전공 중국 유학생이 인식하는 목표선택

과 전공교육 만족도 관계에서 긍정적 심리자본은 조절효과를 가질 것이다.’를 검증하기 위한 모델로써, 목표선택과 긍정적 심리자본의 상호작용항을 모형에 추가로 투입하였다. 연구 결과, 모델의 설명력(R^2)은 .531로 모델 2보다 유의하게 증가하였으므로($p<.05$), 목표선택과 긍정적 심리자본의 상호작용항은 정(+)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B=0.077$, $SE=.039$, $p<.05$). 상기 연구 결과를 종합하여, 목표선택 인식과 전공교육 만족도 관계에서 긍정적 심리자본은 정(+)적인 조절역할을 하였고 목표선택 인식이 전공교육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긍정적 심리자본이 높을수록 상승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표 6. 목표선택과 전공교육 만족도 관계에서 긍정적 심리자본의 조절효과

구분	Model 1			Model 2			Model 3			
	B(SE)	β	t	B(SE)	β	t	B(SE)	β	t	
(상수)	3.742 (.205)		18.230***	3.698 (.152)		24.254***	3.698 (.152)		24.394***	
통제 변수	성별 (여자=1)	-0.164 (.111)	-.089	-1.481	-0.070 (.082)	-.038	-0.848	-0.078 (.082)	-.043	-0.953
	학년	-0.012 (.049)	-.017	-0.253	-0.005 (.036)	-.007	-0.143	-0.008 (.036)	-.011	-0.228
	무용 전공 경력	-0.020 (.062)	-.021	-0.315	-0.004 (.046)	-.004	-0.092	-0.008 (.046)	-.008	-0.168
	전공분야 (현대무용=1)	0.111 (.145)	.066	0.761	0.075 (.108)	.045	0.692	0.081 (.107)	.049	0.756
	전공분야 (한국무용=1)	0.037 (.138)	.024	0.267	-0.053 (.103)	-.035	-0.516	-0.044 (.102)	-.029	-0.434
	전공분야 (기타=1)	0.257 (.156)	.137	1.650	0.080 (.116)	.043	0.692	0.083 (.116)	.044	0.720
독립 변수	목표선택 (A)	0.286 (.051)	.338	5.650***	0.148 (.039)	.175	3.812***	0.158 (.039)	.187	4.067***
조절 변수	긍정적 심리자본(B)				0.506 (.035)	.652	14.321***	0.500 (.035)	.643	14.152***
상호 작용항	(A)×(B)						0.077 (.039)	.088	1.990*	
R^2		.132***			.523***			.531***		
R^2 변화량					.391***			.007*		
F		5.443***			34.273***			31.266***		

* $p<.05$, ** $p<.01$, *** $p<.001$

2) 미래 계획과 전공교육 만족도 관계에서 긍정적 심리자본의 조절효과

모델 1은 연구가설 3인 ‘H3 : 무용전공 중국 유학생이 인식하는 미래계획은 전

공교육 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를 검증하기 위한 모델로써 성별, 학년, 무용 전공 경력, 전공 분야의 영향을 통제하여 미래계획이 전공교육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 연구 결과, 모델의 설명력(R^2)은 .272로 유의하게 나타났다(p<.001), 미래계획은 전공교육 만족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B=0.522, SE=.056, p<.001). 이는 무용전공 중국 유학생들이 미래계획을 명확하게 설정할수록 전공교육 만족도도 역시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모델 2는 긍정적 심리자본을 추가로 모형에 투입한 결과, 모델의 설명력(R^2)은 .526으로 나타나서 모델 1보다 크게 증가하였으므로, 긍정적 심리자본은 전공교육 만족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B=0.459, SE=.040, p<.001). 모델 3은 연구가설 4인 ‘H4 : 무용전공 중국 유학생이 인식하는 미래계획과 전공교육 만족도 관계에서 긍정적 심리자본은 조절효과를 가질 것이다.’를 검증하기 위한 모델로써, 미래계획과 긍정적 심리자본의 상호작용항을 모형에 추가로 투입하였다. 연구 결과, 모델의 설명력(R^2)은 .533으로 모델 2보다 유의하게 증가하였으므로(p<.05), 미래계획과 긍정적 심리자본의 상호작용항은 정(+)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B=0.096, SE=.048, p<.05). 상기 연구 결과를 종합하여, 미래계획과 전공교육 만족도 관계에서 긍정적 심리자본은 정(+)적인 조절역할을 하였고, 미래계획이 전공교육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긍정적 심리자본이 높을수록 더 상승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표 7. 미래계획과 전공교육 만족도 관계에서 긍정적 심리자본의 조절효과

구분	Model 1			Model 2			Model 3			
	B(SE)	β	t	B(SE)	β	t	B(SE)	β	t	
(상수)	3.729 (.187)		19.904***	3.719 (.151)		24.549***	3.706 (.151)		24.587***	
통제 변수	성별 (여자=1)	-0.220 (.101)	-.120	-2.171*	-0.108 (.082)	-.059	-1.312	-0.126 (.082)	-.069	-1.533
	학년	-0.002 (.045)	-.002	-0.034	-0.007 (.036)	-.009	-0.184	-0.013 (.036)	-.018	-0.362
	무용 전공 경력	-0.009 (.057)	-.010	-0.166	-0.001 (.046)	-.001	-0.018	0.005 (.046)	.005	0.103
	전공분야 (현대무용=1)	0.130 (.133)	.078	0.974	0.080 (.108)	.048	0.745	0.084 (.107)	.050	0.784
	전공분야 (한국무용=1)	0.055 (.127)	.037	0.436	-0.041 (.103)	-.027	-0.399	-0.046 (.102)	-.030	-0.447
	전공분야 (기타=1)	0.247 (.142)	.132	1.739	0.079 (.116)	.042	0.682	0.074 (.115)	.039	0.641
독립 변수	미래계획(A)	0.522 (.056)	.506	9.294***	0.212 (.053)	.205	4.015***	0.209 (.052)	.203	3.987***

조절 변수	긍정적 심리자본(B)				0.459 (.040)	.591	11.573***	0.469 (.040)	.604	11.802***
상호 작용항	(A)×(B)							0.096 (.048)	.088	1.990*
R^2		.272***			.526***			.533***		
R^2 변화량					.254***			.007*		
F		13,392***			34,667***			31,620***		

* $p < .05$, ** $p < .01$, *** $p < .001$

3) 문제 해결과 전공교육 만족도 관계에서 긍정적 심리자본의 조절효과

모델 1은 연구가설 5인 'H5 : 무용전공 중국 유학생이 인식하는 문제해결은 전공교육 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를 검증하기 위한 모델로써, 성별, 학년, 무용 전공 경력, 전공 분야의 영향을 통제하여 문제해결이 전공교육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 연구 결과, 모델의 설명력(R^2)은 .347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므로($p < .001$), 문제해결은 전공교육 만족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B=0.488$, $SE=.044$, $p < .001$). 즉, 진로 선택과 결정 과정에서 무용전공 중국 유학생들의 문제해결 능력이 높을수록 전공교육 만족도도 역시 높아지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모델 2는 긍정적 심리자본을 추가로 모형에 투입한 결과, 모델의 설명력(R^2)은 .501로 모델 1보다 크게 증가하였으므로, 긍정적 심리자본은 전공교육 만족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B=0.469$, $SE=.053$, $p < .001$). 모델 3은 연구가설 6인 'H6 : 무용전공 중국 유학생이 인식하는 문제해결과 전공교육 만족도 관계에서 긍정적 심리자본은 조절효과를 가질 것이다.'를 검증하기 위한 모델로써, 문제해결과 긍정적 심리자본의 상호작용항을 모형에 추가로 투입하였다. 연구 결과, 모델의 설명력(R^2)은 .507로 모델 2보다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하지 않았으므로 유의 수준($p < .05$) 하에서 문제해결과 긍정적 심리자본의 상호작용항은 상호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상기 연구 결과를 종합하여, 문제해결과 전공교육 만족도 관계에서 긍정적 심리자본은 조절역할을 수행하지 못했으므로, 문제해결이 전공교육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다른 변인과 상대적인 비교에서 긍정적 심리자본에 의해 일정부분 조절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

표 8. 문제해결과 전공교육 만족도 관계에서 긍정적 심리자본의 조절효과

구분	Model 1			Model 2			Model 3			
	B(SE)	β	t	B(SE)	β	t	B(SE)	β	t	
(상수)	3.748 (.177)		21.153***	3.750 (.155)		24.179***	3.712 (.156)		23.735***	
통제 변수	성별 (여자=1)	-0.166 (.096)	-.090	-1.727	-0.092 (.084)	-.050	-1.088	-0.099 (.084)	-.054	-1.181
	학년	-0.019 (.042)	-.027	-0.459	-0.018 (.037)	-.025	-0.502	-0.027 (.037)	-.037	-0.731
	무용 전공 경력	0.017 (.054)	.017	0.306	0.004 (.047)	.004	0.080	0.015 (.048)	.016	0.314
	전공분야 (현대무용=1)	0.084 (.126)	.051	0.669	0.060 (.110)	.036	0.541	0.060 (.110)	.036	0.547
	전공분야 (한국무용=1)	-0.014 (.120)	-.009	-0.115	-0.065 (.105)	-.043	-0.621	-0.066 (.105)	-.044	-0.627
	전공분야 (기타=1)	0.073 (.134)	.039	0.543	0.024 (.118)	.013	0.204	0.034 (.118)	.018	0.287
독립 변수	문제해결(A)	0.488 (.044)	.575	11.186***	0.102 (.058)	.120	1.753	0.108 (.058)	.128	1.866
조절 변수	긍정적 심리자본(B)				0.469 (.053)	.604	8.803***	0.483 (.054)	.623	8.981***
상호 작용항	(A)×(B)							0.064 (.039)	.078	1.638
R^2		.347***			.501***			.507***		
R^2 변화량					.155***			.005		
F		19.050***			31.435***			28.429***		

* $p < .05$, ** $p < .01$, *** $p < .001$

4) 직업 정보와 전공교육 만족도 관계에서 긍정적 심리자본의 조절효과

모델 1은 연구가설 7인 ‘H7 : 무용전공 중국 유학생이 인식하는 직업정보는 전공교육 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를 검증하기 위한 모델로써 성별, 학년, 무용 전공 경력, 전공 분야의 영향을 통제하여 직업정보가 전공교육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 연구 결과, 모델의 설명력(R^2)은 .240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따라서 $p < .001$), 직업정보는 전공교육 만족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B=0.310$, $SE=.037$, $p < .001$). 즉, 직업정보를 잘 인식하는 무용전공 중국 유학생의 전공교육 만족도는 더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모델 2는 긍정적 심리자본을 추가로 모형에 투입한 결과, 모델의 설명력(R^2)은 .502로 모델 1보다 크게 증가하였고, 긍정적 심리자본은 전공교육 만족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B=0.494$, $SE=.043$, $p<.001$). 모델 3은 연구가설 8인 ‘H8 : 무용전공 중국 유학생이 인식하는 직업정보와 전공교육 만족도 관계에서 긍정적 심리자본은 조절효과를 가질 것이다.’를 검증하기 위한 모델로써, 긍정적 심리자본의 상호작용항을 모형에 추가로 투입한 결과, 모델의 설명력(R^2)은 .512으로 모델 2보다 유의하게 증가하였으므로($p<.05$), 직업정보와 긍정적 심리자본의 상호작용항은 정(+)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B=0.077$, $SE=.035$, $p<.05$). 즉, 직업정보와 전공교육 만족도 관계에서 긍정적 심리자본은 정(+)적인 조절역할을 하였고, 직업정보가 전공교육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긍정적 심리자본이 높을수록 큰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표 9. 직업정보와 전공교육 만족도 관계에서 긍정적 심리자본의 조절효과

구분	Model 1			Model 2			Model 3			
	B(SE)	β	t	B(SE)	β	t	B(SE)	β	t	
(상수)	3.794 (.191)		19.860***	3.754 (.155)		24.227***	3.705 (.155)			
통제 변수	성별 (여자=1)	-0.149 (.104)	-.081	-1.438	-0.082 (.084)	-.045	-0.979	-0.094 (.084)	-.051	-1.121
	학년	0.000 (.046)	.000	0.006	-0.013 (.037)	-.018	-0.353	-0.030 (.037)	-.041	-0.792
	무용 전공 경력	-0.031 (.058)	-.033	-0.539	-0.006 (.047)	-.006	-0.119	0.013 (.048)	.013	0.269
	전공분야 (현대무용=1)	0.097 (.136)	.058	0.716	0.062 (.110)	.037	0.559	0.065 (.109)	.039	0.590
	전공분야 (한국무용=1)	-0.053 (.130)	-.035	-0.412	-0.078 (.105)	-.051	-0.739	-0.067 (.104)	-.044	-0.641
	전공분야 (기타=1)	0.108 (.145)	.058	0.746	0.025 (.118)	.013	0.209	0.051 (.117)	.027	0.434
독립 변수	직업정보(A)	0.310 (.037)	.474	8.487***	0.066 (.036)	.101	1.808	0.091 (.038)	.140	2.406*
조절 변수	긍정적 심리자본(B)				0.494 (.043)	.637	11.473***	0.509 (.043)	.655	11.766***
상호 작용항	(A)×(B)							0.077 (.035)	.116	2.228*
R^2		.240***			.502***			.512***		
R^2 변화량					.262***			.010*		
F		11.298***			31.484***			28.981***		

* $p<.05$, ** $p<.01$, *** $p<.001$

본 연구는 대학 졸업 후의 성공적인 미래 직업과 진로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높아지면 전공교육 만족도가 상승하여 성공적인 대학 생활과 미래 진로 적응력을 키울 수 있다는 연구 가설을 기반으로 변수 간 상관관계 연구를 진행하였다.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논의한다. 첫째, 자기효능감에서 확장된 개념으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졸업이후 진로결정(취업이나 새로운 학업 등)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일들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시키는 요인임을 확인하였다. 즉,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목표선택, 미래계획, 문제해결, 직업정보는 전공교육 만족도의 하위변수인 전공 ‘관심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으므로 이는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직업적 결과기대와 전공교육의 깊은 관심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Choi et al., 2012; 윤태일 외, 2014; 이수연, 김혜란: 2019; 이상무, 박관성, 2019)와 진로미결정 상황을 조기에 해결하는 동기를 부여해준다는 연구(주영주 외, 2015; 어윤경, 2019) 등에 의해 지지된다. 둘째,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목표선택, 미래계획, 문제해결, 직업정보는 전공교육 만족도의 하위변수인 전공 ‘활용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이는 무용전공 중국 유학생이 인식하는 전공교육 활용도는 학습과정에서 접하게 되는 다양한 진로 인식을 바탕으로 목표와 과업을 잘 해내기 위하여 행동을 계획하고 그에 따라 자신이 잘 활용할 수 있다는 긍정적 기대감으로서의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연관되어 있다는 연구(송윤정, 조규관, 2015)와도 일맥상통한다. 따라서, 전공교육 활용도는 무용 전공자의 주관적인 즐거움과 졸업 후의 진로에 대한 긍정적인 사고가 함께 형성되어 나타나는 결과물이므로, 무용 전공 중국 유학생이 대학 학습과정을 통해 높은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을 가지면 진로 및 취업과 관련한 준비 행동들을 하면서 전공교육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목표선택, 미래계획, 문제해결, 직업정보는 전공교육 만족도의 하위변수인 전공 학습과정의 ‘의사소통’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으므로 무용 전공 중국유학생의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서 교수자와 학습자의 긴밀한 리더쉽과 팔로우쉽 의사소통 관계의 중요성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무용 전공 중국 유학생의 한국 체류 기간이 길어질수록 유학 초기의 열정과 유학생화에 대한 기대감의 감소로 대학 생활 적응력이 감소할 수 있으므로 국내에 체류하고 학습하는 기간 동안 학과 생활 및 무용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등을 모니터링하고 지속적인 의사소통 채널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넷째,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목표선택, 미래계획, 문제해결, 직업정보는 전공교육 만족도의 하위 변수인 전공 학습과목의 '내용구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으므로 이는 무용 전공 중국 유학생들의 자기 주도적 무용 학습과 연습에 기반한 공연 기획력을 높이기 위한 전공 수업지도안의 내용구성이 보다 더 체계적이고 효과적이어야 한다는 예측이 가능하다. 아울러, 교육부의 2015년 개정 예체능 교육과정을 참고하여 해외 무용 공연단의 운영, 교육 내용의 벤치마킹을 통한 전공 교육 내용구성 방안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주기적인 개선 의견을 수집하고 이를 반영한 무용 교육 적응방안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특히, 무용 전공 중국 유학생의 한국 문화생활의 원활한 적응을 위한 추가적인 활동프로그램을 지원해야 한다. 또한, 체계적 진로 준비행동과 정보 수집활동의 실천적 노력을 병행하여 전공교육 만족도를 지속적으로 향상시켜야 한다. 다섯째,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목표선택, 미래계획, 문제해결, 직업정보 중 '문제해결' 요인은 전공교육 만족도 간 관계에서 긍정적 심리자본이 조절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연구 가설 2-2(무용전공 중국 유학생이 인식하는 문제해결과 전공교육 만족도 관계에서 긍정적 심리자본은 조절효과를 가질 것이다)는 기각되었다. 이러한 가설 검증 결과는 '문제해결'이 진로 선택과 결정 과정에서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 스스로 헤쳐나갈 수 있다는 신념으로 정의되지만(이은경, 2000),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나머지 하위요인(목표선택, 미래계획, 직업정보)과 비교하여 무용전공 중국 유학생 각자가 처리하거나 해결해야 할 문제나 상황적 조건 등에 의해 자기효능감이 상대적으로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이라 판단된다. 따라서, 당면한 문제를 극복하고자 하는 문제 상황에서 스스로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의지와 해결 능력이 강한 사람은 높은 자존감과 자신감으로 인해 긍정적 심리 기제로서의 긍정적 심리자본을 통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전공교육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학업과 교우, 미래 진로 문제해결 능력이 떨어져서 학습과 생활 유지에 대해 무기력 증상이 높게 형성된 학생은 상대적으로 진로 선택이나 탐색, 결정 등 전반적인 과정에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을 독자적으로 형성하는 능력이 저하되고 교육 만족도가 낮아진다는 연구(강미정, 2013; 이애영, 2017)에서 재확인된다. 여섯째, 본 연구의 조절변수로서 자신의 긍정적 측면을 찾고 개발시켜 스스로의 문제를 잘 해결하고 미래 진로를 스스로 꾸려나갈 탄탄한 의지인 '긍정적 심리자본'은 무용전공 중국 유학생이 인식하는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전공교육 만족도 간의 관계에서 조절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자신이 속한 조직에 긍정적인 태도를 높여주고, 이러한 긍정적 심리상태와 정서적 애착이 조직에 대한 부정적 감정을 감소시켜 조직만족도와 직무, 학업 몰입을 높여 준다는 연구(Fredrickson, 2001; 정민주, 박인혜, 2012; 이상훈, 2014)에 의해 지지된다.

다만, 현실적으로 무용전공 중국인 유학생의 대학 생활 적응은 (황매향, 박혜영, 2005:170)에 의하면 언어적응을 포함하여 한국 문화, 생활 적응 차원에서 유학 생활 초반에 형성된 기대감 및 열정이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감소한다고 하였다. 무용전공 중국 유학생 자신이 가진 강점과 잠재력을 향상 시키는데 관심을 둔 교육 패러다임의 변화와 진로 발달에 주요한 긍정적 심리적 기반 요소를 대학 차원에서 지원이 요구된다.

V 결론

본 연구에서는 한국 대학에서 무용을 전공하는 중국 유학생들의 진로결정자기 효능감이 전공교육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관계를 알아보고 긍정적 심리자본의 조절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무용 전공 중국 유학생 354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긍정심리자본의 희망, 낙관주의, 회복력 그리고 자기효능감이 전공교육만족도에 정(+적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하위요인 중 문제해결 요인은 전공교육만족도 간 관계에서 긍정적 심리자본이 조절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무용전공 중국 유학생에게 목표 성취를 위한 개인의 긍정적인 동기부여 및 인지 상태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유학생의 학교생활의 상황을 파악하여 효율적인 지원 프로그램을 만들고 제도도 계속 보완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유학생할 내 다양한 문제상황에서 이를 잘 견디며 끈기 있게 해결할 수 있도록 1:1 멘토링, 다문화 소통, 공유 프로그램을 도입, 적용할 필요가 있으며, 한국어 교육, 학습지원, 진로 및 취업 지원 등 중국인 유학생 대상 맞춤형 프로그램을 도입, 적용할 필요가 있다.

둘째, 대학 교육과정은 학과 전공의 특색을 보여주는 가장 기본적이며, 학교 학과 및 전공교육 사이에 만족도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교육과정과 학과전공은 서로 연관되어있기에 대학의 무용학과는 학생들의 전공교육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셋째, 긍정 심리자본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노력 여부나 환경에 따라 충분히 변화될 수 있으므로 개인의 태도와 행동을 변화시키고 주어진 과업을 달성

함으로써 이것이 성취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무용전공 중국 유학생들은 저마다 무용 잠재력에 차이를 보이고 있고 일률적 무용 학습이나 교육만으로는 한계가 있기에 교수와 학교 및 학생 고충처리 담당자의 적절한 개입이 필요하며 맞춤형 진로 결정 동기부여를 제공하여 유학생 각자가 가지고 있는 긍정 심리자본을 적극적으로 발휘하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결론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한국의 대학과 대학원에서 무용을 전공하는 중국유학생을 한정으로 하여 다양한 출신의 무용전공자를 모두 포함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둘째, 본 연구의 연구 대상자가 전체 대학생들을 대표하는데는 한계가 있으며, 주요 변수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무용 교육 만족도, 긍정적 심리자본의 3개 요인만을 가지고 관계 구조를 알아봄으로써 척도의 전체 구조를 알기에도 제한적이다.

향후 연구에서는 연구 대상자의 범위를 넓히고 인식 척도의 요인간 관계 구조를 밝히며, 여타 연구들과 동등한 조건에서 비교 설명할 수 있는 연구와 무용 전공 교육 프로그램의 효과적인 수업안을 함께 제시할 필요성을 남긴다.

참고문헌

- 강미정(2013), “대학생의 진로결정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지지와 자기효능감의 구조관계 규명”,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강승희(2010), “공학전공 대학생의 전공만족도, 진로결정 효능감 및 진로태도성숙이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 한국직업교육학회, **직업교육연구 29(3)**, 291-307.
- 고현, 박신영(2019), “대학생의 긍정심리자본이 대학생활만족과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 학습자중심교과교육학회,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9(5)**, 215-238.
- 김규진, 정유진, 김형남, 김혜정(2022), “무용전공 중국 유학생의 긍정심리자본이 유학생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과 의사소통의 조절효과”, 한국무용교육학회, **한국무용교육학회지 33(3)**, 161-181.
- 김태욱(2018), “진정성 리더십이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 LMX의 질의 매개변수와 긍정 심리자본의 조절변수를 중심으로”,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경기대학교 대학원.
- 남미숙(1998), “초등학생의 진로 자아 효능감과 관련 변인과의 관계 연구”, 한국진로교육학회, **진로교육연구 9**, 199-222.

- 남부현, 김민지(2016), “국제결혼가정 출신 외국인 유학생의 다문화 정체성 발달에 관한 경험연구”, *다문화교육연구*원, **다문화교육연구 9(2)**, 89-114.
- 박지윤(2017), “대학생의 셸프리더십의 학습만족 예측: 긍정심리자본과 학습몰입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손지향(2020), “교사가 인식한 유치원장의 서번트리더십이 직무열의에 미치는 영향: 유치원 조직문화의 매개효과 및 긍정심리자본의 조절효과”,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경북대학교 대학원.
- 송윤정, 조구판(2015), “대학생의 전공만족도와 학습몰입이 진로결정자기효능감 및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학습자중심교과교육학회*, **학습자중심교육 15(4)**, 355-374.
- 여윤경(2010), “진로상담: 전공-직무 일치와 직업 가치관에 따른 직무 만족도변화 추이”, *한국진로상담학회*, **상담학연구 11(2)**, 1-19.
- _____(2019), “사회인지진로이론에 기반한 학습경험, 진로결정자기효능감, 결과기대, 직업흥미와 진로의사결정의 구조적 관계”, *한국인간발달학회*, **인간발달연구 26(4)**, 49-68.
- 윤태일, 김경희, 신소영(2014), “중학생의 미디어 및 대인커뮤니케이션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탐색 활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진로교육학회*, **진로교육 27(4)**, 167-185.
- 이기학, 이학주(2000), “대학생의 진로 태도 성숙 정도에 대한 예언 변인으로서의 자기-효능감 효과 검증에 대한 연구”, *한국상담심리학회*, **상담 및 심리치료 12(1)**, 127-136.
- 이다빈(2018), “피부미용 NCS 적용 학습모듈 직무중요도가 교육만족도 및 실무 적합도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성결대학교 대학원.
- 이상무, 박관성(2019), “고등학생의 진로결정자율성, 부모진로행동과 진로결정 수준의 관계에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한국청소년학회*, **청소년학연구 26(9)**, 269-297.
- 이상훈(2015), “호텔종사원의 감정노동이 역할스트레스와 소진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경기대학교 대학원.
- 이성식, 정철영(2007), “여대생이 인식한 진로장벽과 진로결정자기효능감 및 진로결정수준의 인과모형”, *한국농업교육학회*, **농업교육과 인적자원 개발 29(4)**, 83-109.
- 이수연, 김해란(2019), “고등학생의 다차원적 완벽주의 성향과 학교생활 적응의 관계: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한국청소년시설환경학회*, **청소년시설환경 17(4)**, 53-164.
- 이애영(2017), “대학생의 대학생활 적응 및 학습된 무기력이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 대학원.
- 이은경(2000), “자기효능감이 진로발달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이종찬(2013), “대학생의 셸프리더십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 이종학(2014), “자기 효능감이 긍정적 자산, 직무만족, 조직몰입, 조직시민행동에 미치는 영향: 서울시내 특1급 호텔 식음료 종사원을 대상으로”,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대학원.
- 정민주, 박인혜(2012), “항공사 객실승무원의 심리적 자본이 직무열의에 미치는 영향: 내재적 직무동기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항공경영학회*, **한국항공경영학회지 10(3)**, 201-220.

- 정주영(2013), “대학교육만족도, 직업가치관, 직업만족도에 관한 구조적 분석”,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대학원.
- 주영주, 고경이, 정유진 (2015), “대학생의 긍정적 정서, 사회적지지, 진로결정자기효능감, 결과기대가 진로준비행동 및 진로만족에 미치는 영향”, 한국진로교육학회, **진로교육연구 28(3)**, 65-83.
- 한예정(2014), “대학생들의 전공선택동기와 직업가치관에 따른 수업참여도와 전공만족도, 취업준비행동과의 영향관계 연구: 조리·외식관련 전공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경성대학교 대학원.
- 허운혁(2021), “중국인 유학생의 대학생활 적응에 미치는 언어·학습·사회관계요인과 사회적 지지 조절효과에 대한 연구”,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신라대학교 대학원.
- 황매향, 박혜영(2005), “대학생의 진로발달과 학교적응도와의 관계”, 학업직업능력연구원, **직업능력개발연구 8(2)**, 157-176.
- Bandura, A.(1977), “Self-efficacy toward a unifying theory of behavior change”, *Psychological Review 84*, 191-215.
- Choi, B. Y., Park, H., Yang, E., Lee, S. K., Lee, Y. & Lee, S. M.(2012), “Understanding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A meta-analytic approach”, *Journal of Career Development 39(5)*, 443-460.
- Crites, J. O.(1969), “Vocational psychology: The Study of Vocational Behavior and Development(Chapter 1,2,3)”, *McGraw-Hill Chapter 1, 8*.
- Fredrickson, B. L.(2001), “The role of positive emotions in positive psychology”, *American Psychologist 56(3)*, 218-226.
- Luthans, F., Youssef, C. M. and Avolio, B. J.(2006), *Psychological capital: developing the human competitive edge*,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Luthans, F. & Youssef, C. M.(2007), “Emerging positive organizational behavior”, *Journal of Management 33(3)*, 321-349.
- Snyder, C. R., Irving, L. M. & Anderson, J. R.(1991), “Hope and health. In C. R. Snyder & D. R. Forsyth (Eds.)”, *Handbook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The health perspective Elmsford, N.Y: Pergamon Press Chapter 15*, 285-305.
- Stajkovic, A. D. & Luthans, F.(1998), “Social cognitive theory and self efficacy: Going beyond traditional motivational and behavioral approaches”, *Organizational Dynamics 26(4)*, 62-74.
- Taylor, K. M. & Betz, N.(1983), “Applications of self-efficacy theory to the understanding and treatment of career indecision”,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22*, 63-81.
- Yakushko, O. & Sokolova, O.(2010), “Work hope and influences of the career development among Ukrainian college students”, *Journal of Career Development 36(4)*, 310-323.